



현재의 충격

더글러스 러시코프 지음

모든 건 지금 일어난다

1970년 출간된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 시대에는 변화의 가속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 책에서 토플러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과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오늘, 저명한 미디어 이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미래의 충격' 연장선에서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통찰한다. 저자는 사회가 과거의 순간이나 미래의 순간보다 지금이 순간 일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트위터, 이메일 그리고 실시간 기술의 변동 덕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재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청림출판·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비자의 인생수업

임재성 지음

실생활에 적용 쉬운 한비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통찰한 한비의 사상이 담긴 '한비자'는 역사적 배경이 춘추전국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명언으로 리드하라'의 저자인 임재성 작가가 쓴 '한비자의 인생수업'은 '한비자'에서 취해야 할 점들을 선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전체 구성은 한비가 추구한 법가 사상의 토대 세(勢), 법(法), 술(術)을 바탕으로 한다. 세(勢)의 덕목은 자기 삶에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원하는 인생을 사는 법을 말한다. 법(法)의 덕목은 정의와 원칙으로 삶을 리드해나가는 자세에 초점을 맞춘다. 술(術)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어려운 '한비자'를 쉽게 풀어 해석하고 다양한 예제를 첨가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 '한비자'를 접하는 사람이나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평단·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 앞에서 술 마시며 울고 있는 당신께 바칩니다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한창훈 지음



"선수에 서다. 이곳에 오면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파도가 부드럽게 갈라지는 소리만 난다. 나는 물방울 행성의 얇은 껍질을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이 정도이다. 하늘을 날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돌고래처럼 수심을 제집으로 삼자는 것도 아니다. 바다와 허공의 경계인 얇은 막, 수면이면 거처로 충분하다."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중>

섬과 바다의 소설가 한창훈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를 펴냈다.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를 낸지 4년 만에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같은 싱싱한 신작을 들고 돌아온 것이다.

원래 '자산어보'는 1814년 흑산도에 유배를 왔던 정약전이 쓴 '어류 백과사전'으로 해조류, 패류, 기타 수산생물의

깊고 푸른 바다가 선물한

싱싱한 해산물 안주 삼아

삶을 버텨온 인생 이야기

식생 등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2014년, 작가 한창훈이 완성해낸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는 오직 바다에서 만난 맛볼 수 있는 술상에 관한 이야기다.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는 작가의 전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에 답했던 바다에 관한 지식, 느낌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온갖 해산물에 대한 생생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그럼에도 신작 '술상'은 전작이 내재한 '밥상'의 의미를 수용, 한층 깊고 넓은 시야로 바다를 조망한다. '술상'과 '자산어보'라는 두 어휘의 결합이 그만큼 독자에 상상의 틀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책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문학동네 카페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산문집이라, 바로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

(글을 연재 하는 중에 세월호 참사로 작가는 글쓰기를 중단하고 바다로 나가

기도 했다. 그 바다를 보며 작가는 미워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되물었다.)

그 물음을 화두처럼 붙들고 작가는 연재를 완성했다. 세월호 참사가 글쓰기를 마무리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산문집에는 작가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펼쳐질 삶의 무늬가 오롯이 담겨 있다. 그는 거문도에서 태어나 바다를 배경으로 자랐고, 바다를 무대로 산다. 지금은 '생계형 낚시꾼'이지만 고깃배 선원을 했고, 공사 현장을 떠돌았으며, 공장을 전전하기도 했다.

술을 곧잘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산문집을 읽다보면 곳곳에서 취기가 느껴지는데, 쓸쓸함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읽힌다.

그러나 '술상 위의 자산어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저자의 시선이 향하는 생명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술을 마시는, 아니 마실 수밖에 없는 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람들은 말 못할 일이 있을 때 바다로 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물론 삶의 지난함과 쓸쓸함만 배어 있는 건 아니다. 생의 엄숙함과 강인함도 묻어난다. 1959년 '팔경호' 사건이 그 예다.

당시 사라호 태풍(사망 및 실종 849명, 부상 2533명, 총 피해 추산액 1678억)이 들이닥쳤을 때 팔경호는 난파직전에 놓여 있었다. 거문도 주민들의 '삶의 총화'



선상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한창훈 작가.

〈문학동네 제공〉

같은 배가 침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별주로 막소주를 들이마신다.

'여행'의 낭만적인 순간에도 술은 빠지지 않는다. 작가는 2013년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 얼음바다에도 갔다. 수면에 떠 있는 얼음조각을 잘게 부수어 보드카

칵테일을 만들었다. 그 전에는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을 항해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술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는 독자에게 묻는다. "배가 한 척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항해를 하겠는가?"

〈문학동네·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의 역사·문화로 무성해진 나무



한국을 지켜온 나무 이야기

원종태 지음

"천자암(天子岩) 뒤쪽에 있는 곱향나무는 두 그루가 인접하여 흡사 엇가락처럼 꼬인 모양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향나무이다. 참으로 독특한 형상으로 마주 서 있는 두 향나무에도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이 곱향나무는 고려시대 보조국사와 담양국사의 지팡이에서 비롯한다. 두 국사는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나란히 꽂았다. 이 지팡이에서 뿌리가 내

리고 가지와 잎이 나서 자라 오늘날 신비의 거목이 되었다고 한다."

순천 송광사에서 산길을 따라 4킬로미터 걸어가면 천자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나타난다. 그 암자에는 곱향나무라는 이색적인 형상의 나무가 있다. 손을 대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인간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무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생명체이다 보니, 자연스레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기 마련이다. 여주시 산림조합장으로 있는 원종태 씨가 쓴 '한국을 지켜온 나무 이야기'는 친근한 나무의 생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익히 알려진 윤문사 은행나무, 보은 정이풍송, 담양 대나무, 안동 굴잡나무 등 오랜 세월이 땅을 지키며 늘 우

리와 함께 했던 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 중의 왕, 왕 소나무 괴산 용송과 역사를 기억하는 청령포 관음송, 전정터로 떠난 입을 기다렸다는 청송 버드나무 등 다양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밖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일깨워 준다. 일본인들이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벚나무는 그 자생지가 우리 남해안과 제주도라는 것이다. 이 벚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가져가 잘 가꾸고 번성시킨다면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인다.

이렇듯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문화와 역사 등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애환뿐만 아니라 나무에 담긴 인문적 가치까지 깨닫게 된다. 〈박북·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사회를 향한 세월호 세대의 목소리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인디고 서원 역음

"세월호 참사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시대, 인간의 존엄마저 돈으로 환산한 자본주의의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이지요. 기성의 시대가 만들어낸 참사인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성세대만 비난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빚는 '기성세대'가 될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윤리적 세

대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회를 향해 외친 의문과 정의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 출간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 각계 학자들의 참여와 재건의 목소리를 담으려 애쓴 책이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 등 거대한 공적인 문제들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이 문제들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공리·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